

오른 쪽을 주의하라 세계 대중예술의 우경화 바람에 관해

조원희 | 대중음악평론가

최근 대중예술은 다양성의 확대로 여러 갈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그중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대중예술의 우경화 현상은 정치적 변화의 신호탄인 동시에 일종의 세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때에 ‘옳은 쪽’을 향해 가는 대중예술을 선호하는 심미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대중예술은 다양성의 확대로 여러 갈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돋보이는 여러 현상 중 하나는 바로 노골적인 우경화 현상이다. 20세기 대중예술이 적어도 소수자와 약자, 혹은 소수민족과 비주류 인종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노골적인 우경화 바람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20세기 후반부터 발화된 중요한 문화적 화두, ‘정치적으로 올바른’ (Politically Correct)이라는 용어로부터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발전된다.

소위 ‘정치적으로 올바른’ 소재 중 가장 뜨겁게 달궈져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던 부분은 바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이었다. 같은 성을 지닌 인물들이 이성 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믿어왔던, 아니 오랫동안 그런 것으로 약속돼 왔던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을지도 모른다.

문화적 화두와 대중문화

고대 그리스로부터 로마를 거쳐 중세와 르네상스를 관통해 산업혁명기에 이르기까지 ‘케이-레즈비언 문화’는 언제나 중대한 범죄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대단한 혁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덕분에 우리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열리는 합법적인 행사 ‘퀴어 영화제’를 만날 수 있었고, 변화가의 멀티플렉스에서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영화’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화두 중에서 가장 센세이셔널하고 뜨거운 것이 동성애에 대한(‘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이라면, 가장 많은 이들이 공감한 것은 바로 사회적 소수자,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안배다.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이들이 경제적인 주인공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

황이었던 중세시대 이후 산업 혁명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소수자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부유한 이들과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구의 주인공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절대 다수의 노동 계급이 향유하는 대중예술에서는 처음 '부자를 꿈꾸는' 작품들이 큰 인기를 얻었다.

재즈 시대부터 언제나 수많은 노래들은 '최고급의 와인'을 마시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위대한 개츠비』를 비롯한 수많은 대중소설들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 복수하는' 플롯을 취해왔다. 하지만 20세기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영화 <패스워드>처럼 존경받는 부자들은 일정 이상의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지닌 작품들이 득세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을 비하하는 뉘앙스의 글을 써서 안 된다.

흑인은 약탈자가 아니라 백인에 희생당한 소수민족. 사회주의자들은 절대로 체제전복을 꿈꾸는 테러집단이 아닐뿐더러, 희랍문화 이후로 규정된 전통적인 미의식 보다는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미의식이 중요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록은 소울보다 우월한 장르가 결코 아닌 것으로 발표되었고, B급 호러영화는 언제나 타르코프스키의 영화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텔리겐차적 편견은 20세기와 함께 종료됐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 문화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 노력은 21세기 들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대중 예술의 우경화 현상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1세기의 첫 해였던 2001년의 어느 날, 흥미로운 외신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주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일본에서 제작 중인 어떤 영화가



영화 <진주만> 포스터(감독 마이클베이, 2001)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식적인 항의 문서를 제작사인 '도쿄 영상 제작'에 보낸 것이다. 후지 유키오 감독이 만든 이 영화의 제목은 <무르데카 17805>, 인도네시아어로 '독립'을 뜻하는 '메르데카'를 일본식 발음으로 치환한 제목이었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다. 1945년, 세계 2차대전에서 패전한 후에도 인도네시아에 남아 끝까지 네덜란드에 대항하여 인도네시아 점령권을 놓고 전투를 계속한 2,000여 명의 패잔병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제작진의 태도는 달랐다. 350년 간 네덜란드의 지배아래 있던 인도네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일본군의 자비로운 대리전, 인도네

시아의 독립을 위한 대 일본 제국의 (자신들은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역사적 해석이 이렇다면, 스토리텔링은 간단하다. 폭탄을 꺼내고 네덜란드 탱크를 향해 돌진하는 일본 보병, 포로로 잡힌 인도네시아 군을 마치 '라이언 일병' 이라도 구해내듯 어렵사리 구해내고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해 '희생' 하면 되는 것이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그런 일본군에 대해 감사하고, 또 '존경의 념' 을 표현하면 될 뿐이었다. 심지어 한 인도네시아의 부인이 감사의 뜻으로 일본군 중위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까지 있었던 것이다.

소에마디 브로토단닌그라트 주일 인도네시아 대사는 주요 외교 인사들을 모아놓고 가진 1차 시사회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바로 그 장면 때문이었다. 그는 "이 장면은 전통적인 인도네시아의 인사법과 전혀 관계없는 연출일뿐더러 침공군인 일본에 의해 굴욕을 당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어이없는 장면에 대한 항의서한에 대한 답신은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전해졌고 물리적으로는 '군화에 입을 맞추는 바로 그 장면' 을 삭제하고 그 여인이 일본군 중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선에서 정리되었다. 2001년의 인도네시아 대 일본의 외교 분쟁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고, 4월말, 전후 일본사상 가장 우경화된 '고이즈미 내각' 이 출범되었다.

5월 12일, 마치 새 내각 출범에 대한 기념 개봉인 양 <무르데카 17805>는 도쿄 도내 주요 영화관에서 개봉되었다. 일본인의 손으로는 오랜만에 만들어진 본격 전쟁영화인 이 영화는 <한니발>과 <멕시칸>에 이어 3위로 도쿄 박스 오피스의 한자리를 차지했다. 감독인 후지유키오는 1998년, <프라이드, 운명의 순간>이라는 전쟁 영화로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황당한 자존심을 강



영화 <화씨9/11> 포스터(감독 마이클무어, 2004)

조해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 관념 속의 일본 우파들로부터 비판받았던 바로 그 자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런 일본인들도 '보기 좋게' 라이트 혹은 맞았다. 역시 '전쟁영화'에 의한 것이다. 1억 5천 만 불이나 들인 초 거대 블록버스터, 월트 디즈니의 자체들이 만들어낸 <진주만>이 바로 그것이었다. <진주만> 논란은 영화의 제작단계부터 있었던 것이고,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일본 시장에서의 흥행을 고려해, 영화 말미의 '비열한 일본의 기습'에 대한 대사를 삭제하고, '전쟁'과 성조기를 강조한 원래의 포스터 대신 일본판 포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는 화두는 사실 너무나도 비겁한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은 가린 채, 다른 노선에 존재하는 자들을 ‘포용’ 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전술인 것이기 때문이다.

스터는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를 강조한 버전으로 인쇄되었다. 일본의 기습에 의한 전쟁발발이라는 원래의 역사적 사실이 그리 ‘만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일본인들이 보기 좋게 맞은 라이트 혹은 디테일한 부분에 존재했다.

진주만 공습이 감행된 후, 일본인 장군은 군함 위에서 전령에게 불안한 한마디를 던진다. “우리가 잡자는 거인을 깨운 것은 아닐까?”라고. 이 얼마나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듣고 싶은’ 한마디였을까? 일본인 자신들이 해방시켜줬다고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의 촌부로부터 ‘받고 싶은 대접’을 받은 인과응보라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개를 문 것은 개였던 것이다.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대중예술의 우경화 현상은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테러를 기점으로 더욱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그 노골화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지녔던 아티스트들이 ‘테러리즘 그 자체’에 대해 저항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오랫동안 ‘좌파 뮤지션’으로 분류됐던 밴드 U2를 비롯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은 9·11 테러에 대한 추모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미국 사회의 우경화에 참여했다. ‘오죽하면 U2가 테러리즘을 중식시키자고 나서겠는가’가 바로 네오콘(Neocon), 혹은 신 우파(New Right)들의 화두였다.

우리에게는 인기 없지만 미국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로컬 장르 컨트리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아예 부시의 중동정책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기도 했다. 때로는 <화씨 9/11>을 만든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 같은 ‘부시의 절대 반대파’가 큰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좌파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좌파의 비인간적 센세이

셔널리즘의 대표가 아니냐는 강렬한 비판 속에 빠지면서 빛을 잃기도 했다.

일본에서의 대중예술의 우경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05년, 정확하게 일본이 원폭을 맞고 종전한지 60년이 지난 중전 60주년 기념의 해.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나 <나디아>처럼 한국 내에서도 수많은 팬들을 지니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감독 출신인 히구치 신지는 <로렐라이>라는 낭만적인 제목의 실사 영화를 발표했다. 이 영화는 세계 2차대전을 배경으로 세 번째의 원폭 투하를 저지하는 한 잠수함의 활약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여주인공이 ‘나치 생체 실험의 피해자’라는 설정을 지니고 있는 등 일본이 2차대전의 피해국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두드러졌다. 일본의 국민배우라는 야쿠쇼 코지, 그리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젊은 배우 츠마부키 사토시 등이 출연한 이 작품은 지난 3월 일본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러한 대중예술의 우경화 현상은 단지 영화나 대중음악 등의 대중예술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중국 해남도에서 학살된 수천 명의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와 관련된 사진전이었던 <해남도 특별전>이 일본 내의 우경화 분위기로 일본 전시가 취소되기도 했던 2004년의 사건을 살펴보면 문화의 우경화가 단순히 대중예술의 차원에서만 노골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올바르고자 하는 노력’으로 대중예술의 우경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는 화두는 사실 너무나도 비겁한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은 가린 채, 다른 노선에 존재하는 자들을 ‘포용’ 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전술인

것이다. 그리고 '우파'들이 이제는 조금도 '쿨'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고, 어떤 종류의 정치가들 일지라도 그들은 100%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발악인 것이다. 정말 우스운 것은 그런 비겁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우파들의 단골 메뉴일 뿐인데, 그런 사실을 간과하고 너무나 쿨하게 느껴지는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는 화두를 적용하는 소위 '진보세력'들도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는 것은 오른쪽에 선 자들이 좌측을 견제하는 수단일 뿐, 태생부터 좌측에 기운 사람들이 오른쪽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다.

벌써 몇 년째 계속되어온 문화계의 'PC'는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모양이다. 그 괴멸은 세뇌된 좌파들이 이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파들이 직접 '정치적으로 올바른' 덕목을 포기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우파들이 시작한 전술은 우파들이 포기하면서 사라진다. 2001년이 시작되자마자 일본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우경화 현상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니, 미국의 우경화와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니, 이런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분명히 세상은 조금씩 미쳐가고 있다. 최근 영화와 음악들은 그런 징후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은 길'에 서 있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일본에서는 20여 년 간의 장기 불황을 타개하고자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도 않을 것이며 침공을 위한 군대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평화헌법을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압권은 그것을(역시 부시 집권 이후로 계속되는 불황에 허덕이는) 미국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전쟁이 시작될까봐 두려움에 떨거나 정치상황이 급변화할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일본이 패권주의적인 행보를 벌이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나라인데다 외교와 국방에서 철저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21세기가 시작되고 5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대중예술의 우경화 바람은 이런 정치적 변화의 신호탄인 동시에 일종의 세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른쪽이 아닌 '옳은 쪽'을 향해 가는 대중예술을 선호하는 심미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이다. ●●